

# “많은 꿈 중 하나 이뤄졌다”

## 호주오픈 테니스 ‘어릴적 우상’ 조코비치 꺾고 대이변 일으킨 정현

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세계랭킹 14위)라는 산을 넘는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58위)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6강에서 조코비치를 3-0(7-6(7-4) 7-5 7-6(7-3))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오른 팔꿈치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조코비치가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정현의 승리는 이번 대회 대이변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다.

2년 전 처음 나선 호주오픈 본선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 0-3(3-6 2-6 4-6)으로 완패했던 정현은 2년 만에 만난 우상에 환관한 실용전을 펼쳤다.

한국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대회 8강에 오른 것은 정현이 최초다. 이전까지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65·은퇴),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의 16강이다.

자신의 어릴적 우상을 꺾고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정현은 경기 직후 플레이어 박스를 향해 큰절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직후 메인코트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현은 “어떻게 조코비치를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저 기쁘다. 내가 오늘 이길 수 있을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조코비치와 다시 경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한껏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자가 ‘코트 밖에서 엄청난 각의 앵글을 만들어낸 것이 조코비치가 아닌 당신이었다’고 말하자 정현은 “조코비치는 나의 어릴 적 우상이었다. 어릴 때 조코비치의 앵글을 따라해보려고 했다며 웃었다.

정현은 3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3-0으로 앞서다가 3-3으로 따라잡힌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때까지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서있었기 때문에 3세트를 내줘도 4, 5세트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조코비치보다 어리기 때문에 2시간 더 경기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다.

한국말로 소감을 밝힐 기회도 얻은 정현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다. 수요일에 4강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며 “계속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정현은 “이런 큰 대회에서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와 경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조코비치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22일(현지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 경기. 정현이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큰절을 하고 있다.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승리해서 더 값진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은 “오늘 승리로 인해 한국에서 테니스 붐이 더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은 나에게 있어 많은 꿈 중 하나가 이뤄진 날”이라고 전했다.

인제 승리를 확인했다는 말에 정현은 “마지막 포인트를 탈 때라며 끝까지 방심을 늦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본질 세리머니에 대해 묻자 정현은 “저를 도와주는 스폰서 매니저 팀이 있었다. 또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었다”며 “우리 집 막내인데도 외국에 나가있고, 막내처럼 행동을 하지 못한다. 평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코트에서 승리를 하면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 후 중계 카메라에 “보코비치라는 글귀를 보여주기도 했던 정현은 “보코비치라는 문구 위에 ‘캡틴’이라고 썼는데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삼성증권 팀이 해제되고, 김일순 감독님의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이렇게 나와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야간경기를 치렀지만 정현은 “3회전에서 5세트까지 치렀는데 오히려 조금 더 쉴 시간이 있었다. 앞

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기를 앞두고 고드윈 코치가 여태까지 한 것이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코비치는 큰 경기 경험이 많아 어떤 리액션을 할지 모르니 내가 갈 길만 가라고 했다”며 “경기 중 조코비치가 호흡을 유도했지만 신경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현은 약점으로 꼽혔던 포핸드를 개선하면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코비치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정현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현은 “2016년 부상으로 4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오늘 같은 날을 만들어줬다고 되돌아봤다.

또 “조코비치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려고 했다. 프로처럼 행동하고, 유망주가 나를 보고 좋은 점만 배우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경기 후 조코비치에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다. 다음 경기도 잘하라는 덕담을 들었다는 정현은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다. 아직도 프로가 되는 중일 뿐이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국산 대신 수입 썰매로 평창 금도전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38·강원도청)·서영우(27·경기연맹) 조가 결국 현대자동차가 만든 국산 썰매 대신 라트비아 장인이 만든 썰매를 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22일 “남자 2인승 봅슬레이 대표팀은 라트비아산 BTC 썰매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라트비아산 썰매는 원윤종·서영우가 2015~201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을 때 탄 썰매다.

그동안 대표팀은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해 전 세계 트랙을 돌며 한국형 봅슬레이와 라트비아산 썰매를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다.

연맹은 “0.01초를 다투는 봅슬레이에서 테스트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날씨, 얼음 상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수백 번 이상의 주행이 필요했다”며 “변수를 줄이기 위해 주행이 끝나면 지도자와 선수가 밤새 영상과 기록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테스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피에르 루더스 코치 등 세계적인 지도자가 직접 주행한 후 피유틀 원윤종과 의견을 교환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정면승부를 벌일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수백 번의 주행 테스트를 했고, 지난 주 최종 테스트를 끝으로 장비를 선택했다.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총감독은 “힘든 결정이었다. 두 썰매의 성능 차이는 없었다. 다만 10년 탔을 때 10년 모두 안정적으로 탈 수 있고, 조금 더 손에 익은 썰매를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봅슬레이는 페라리, 맥라렌, BMW 등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2016~2017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대회 남자 2인승 봅슬레이 경기에 출전한 대한민국 피유틀 원윤종(32·강원도청·앞)과 브레이드먼 서영우(26·경기연맹·뒤) 선수가 합쳐 출발하고 있다.

력 각축장이다. 하지만 썰매 불모지인 한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다른 나라 썰매를 빌려타는 처지였던 한국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에야 지원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썰매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 대표팀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 선수들에게 더욱 최적화된 국산 썰매가 만들어지면 한층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고 현대자동차가 나섰다.

2014년 한국형 장비 개발에 착수한 현대자동차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2015년 10월 최초로 한국형 봅슬레이를 제작해 대표팀에 전달했다. 선수들에게 개선점을 듣고 2016~2017시즌을 앞두고는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할 썰매를 만들었다.

그러나 라트비아산 썰매를 타고 세계랭킹 1위를 달린 원윤종·서영우는 2016~2017시즌 성적이 3위로 떨어졌다. 시즌을 앞두고 원윤종이 허리와 목에 부상을 당한 탓도 있지만 현대차 썰매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해 그

러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윤종·서영우는 2017~2018시즌 8차례 월드컵 대회 중 1~3차 대회만 치르고 중도 귀국,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트랙을 많이 타며 홈 이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올 시즌 BTC 썰매를 타고 월드컵 대회에 나섰지만, 원윤종·서영우의 성적은 월드컵 1차 10위, 2차 13위, 3차 6위로 그치지 못했다.

연맹은 “현대차가 없었다면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현재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봅슬레이 종목이 국내에 알려지기 전인 2014년부터 한국형 장비 개발과 엔지니어 지원, 썰매 날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줬다. 이런 도움에 힘입어 한국 봅슬레이의 역량과 위상이 발전했다”고 인사했다.

원윤종·서영우와 달리 여자 봅슬레이 2인승 대표팀인 김유란(26·강원연맹)·김민성(24·동아대) 조는 현대차 썰매를 타고 안방 트랙을 누빈다.

/뉴시스

# 빅토르 안, 도핑 문제로 평창행 불발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익스프레스 등 러시아 언론들은 23일(한국시간) “빅토르 안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긴급 타진했다.

스포츠 익스프레스는 라치드 맥클라렌 교수가 주도한 보고서가 빅토르 안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맥클라렌 교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금지약물 실태를 폭로한 인물이다.

IOC는 국가 주도로 조직적인 도핑을 실시한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하면서 “도핑과 무관한 선

수들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Olympic Athlete from Russia) 자격으로 평창행을 허락한다”고 공언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IOC는 이 과정에서 111명을 제외했는데, 여기에 빅토르 안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빅토르 안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3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무릎 부상과 빙상연맹과의 갈등으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파벌 싸움에 설 곳을 잃은 빅토르 안은 2011년 전격 러시아 귀화를 선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가기를 달고 500m·1000m·5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빅토르 안은 최근까지 러시아 대표팀과 한국을 찾아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평창 대회를 준비했지만 정작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위기에 놓였다.

러시아의 스포츠 전문 변호사인 미하일 프로코펜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사전에 확보한 명단에는 빅토르 안의 이름은 없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프로코펜은 빅토르 안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더라도 올림픽 개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도 출전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타스 통신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빅토르 안과 또 다른 쇼트트랙 선수 3명도 평창에 갈 수 없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